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긴 여운이 남는다

목련, 동백, 진달래, 산수유, 이를 모를 야생화가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퇴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간식거리를 사러 아파트 앞 가게로 종종 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누군가 덤석 내 손을 잡았다. 깜짝 놀라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자 환한 얼굴을 들어댄다.



박여범

용복중학교 교감·시인·문학박사

"사장님, 사장님, 우유 하나 챙겨 가세요. 우유 드시려는 것이 아녜요, 사람들은 많이 지나가지만,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 드리는 것이니 가져가세요, 장에 좋은 것 드릴까요? 위에 좋은 것을 드릴까요? 네 사장님."

"아니, 뭐야?". '내가 왜 사장이야? 사장도 흔하지? 모두 다 사장' 이라네. 나는 손을 흔들어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그때, 주변 도로에서 영업 중이던 우유업체 통료가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 멈춰섰다.

"갑소사 '녀석'이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녀석', '녀석'이다. 사람들 앞에서 한 마디도 못 하던 그 '녀석'이 우유 고객 모집 영업을 하고 있다. 상황이 낯설었지만, 말단사원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법 지위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 잠시 걸

음을 멈추는 듯하다니, 천천히 걸어오는 자세가 '녀석'도 당황한 눈치다.

"아니, 이거 누구여? 어디서 많이 뵈 분인디? 저, 모르나요?"

"뉘신지요? 모르겠습니다. 길 비켜 주세요?"

"니, 정말 그렇게 나올래? 날 모른다? '쳐니'다. 나 전설의 '쳐니'? 니, 진정 모르나?"

"모른다. 몰라, 모르는 것으로 하고 싶다. 자식이?"

"....."

"그, 첫사랑 '순님' 이름 못 잊어, 울던 비보? 아직도 출근인, 그, 그 '쳐니'라고, 정말....."

"그래, 그 순님을 내가 다시 만나서 데이트 중이야? 어쨌래, 자식이?"

"뉘러, 이거, 이 자식, 니, 들었나?"

'쳐니', 너 윈전 미쳤구나? 제 정신이 아니네, 나?"  
"아니다. '순님'이 내 차에 있다. 불러 줄까? 니도, 보고 싶지? '순님'이 참 예쁘다."

"....."

"기다리거라, 민초야, 내가 후딱 차에서 '순님'이 데려올 테니, 올 만에 얼골이라도 봐야지?"

"미친, 미친 놈, 내 갈란다. 다음에 연락해라, 김지랑에 '쳐니'야, 니 좋아하는 막걸리 내가 산다. 수고해라. 니, '순님'이, 야그는 그만 해라, '순님'이 좋아하고 지냈잖네, 지속 아....."

"....."

"아픈 손가락 '쳐니'를 처음 만난 것은 뜻밖한 20대 청년시절이다. '녀석'은 항상 매사에 소극적이고 목표도 없이 무책임한 성향이 강

했다. 도전적이고 일을 추진하면 물불 안 가리던 나와는 너무나 정 반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녀석'과 늘 평행선을 걸었다. 그렇지만 마지막엔 늘 함께였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동행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쳐니'와의 연락 두절에도 '녀석'의 너털 웃음이, 시큰둥한 반응이,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린다. 무심결에 통화 버튼을 누른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다. 번호를 확인하니 익숙하다. '누굴까?' 생각을 더듬어 본다. '녀석'이다. 잠시 후, '딩동', 문자가 도착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늘 이런 식이다.

자신이 할 말만 문자로 '땡' 남기고,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하는 '녀석'이다. 그런데도 나는 '녀석'이 싫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첫사랑 '순님'이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쳐니'에게 마음이 간다. 짧지만 강렬했던 '쳐니'와의 만남, 후회가 밀려오고 긴 여운이 남는다. '아름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에 밑줄이 그어진다.

미친 척, 낯은 툼미리에 흑백으로 남아 '녀석'과 함께 하는 '순님'이 얼굴을 보고 왔어야 했나?

사설

관심 커지는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정 사유를 신설했다. 에듀파인(edufine)은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이다.

회계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이제껏 사립 유치원에서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2018년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국공립은 물론 2020년까지 모든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 3법은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유치원 비리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립 유치원장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치원 3법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독이 더 철저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도 나아지고 비리 원장 퇴출도 쉬워질 것이다. 유치원의 여러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그리고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은 물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과거엔 수기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썼었다.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상황을 훤히 볼 수 있게 됐다. 부정을 저지르기도 간편한 바퀴 달아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의 직위로 원장인 자신을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앞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문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이 전국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도가 요청한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배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투입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 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절근로 비자는 농번기 등 농촌 현장의 인력 수요가 많을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2015년 19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6년 200명, 2017

년 10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6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C-4 비자 이외에 근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E-8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운영이 최후된 것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배정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자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과수 노지 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228명)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일자리 증대를 받게 된다.

독자제언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전북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편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에는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이 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4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차량보다 9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마을회관들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읍주 후 농기계 조작을 하면 안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을 하게 되면 조종 능력이 떨어져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또한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농로로 이동할 경우 과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농기계 사용 전, 후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들을 점검함으로써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농기계 사고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5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수칙 불이행 21%, 장비 불량 9%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만큼 농민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정지선 지키기는 생명선 지키기

최근 따뜻해진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빨리 운전하는 습관으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있는가?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도 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

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그동안 무심코, 때로는 모른척 지나쳤던 나쁜 교통문화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며,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보행자 보호의식은 그 첫걸음이고 이러한 교통질서 확립은 결국 법질서 확립에 초석이 되어 매년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